

국어 영역 (독서)

1주차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 형/'나' 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EBS 배경지식의 이해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단답형 답의 숫자에 '0'이 포함되면 그 '0'도 답란에 반드시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배점은 2점, 3점 또는 4점입니다.
- 계산은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이런 언어 개념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 언어 개념은 보편성을 갖는데, 이는 실제 현실의 대상에 비해 언어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현실의 대상은 늘 변화하는 데 반해 언어 개념은 고정적이라는 점이다. 즉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언어 개념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둔 공자와 순자의 사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의 본질과의 관계를 탐구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다.

공자는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그 명분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어야 사회 질서가 잡히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정명 사상이라고 한다. 정명 사상은 순자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해당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의 이름, 즉 언어 개념이 되는 것이라 보았다.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중시한 사상가인데, 예는 대상 간의 분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순자는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순자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언어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한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문명 비판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공자, 순자와 같은 유가가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계승하며 유지하려고 한 사상이라면, 노자, 장자와 같은 도가는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인위를 배제한 자연 상태인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노자는 언어 개념을 인위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노자는 모든 것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현실 세계를 유명(有名)의 세계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가짜 이름이라고 여겼다. 이는 언어 개념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상의 본질은 언어 개념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이며, 노자는 이것을 무명(無名) 혹은 무(無)로 표현했다. 노자는 유명한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무명의 세계가 유명한 세계보다 앞서고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런 노자의 입장은 장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장자에 의하면 언어 개념은 상대적이며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0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은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를 할 수 있다.
- ② 공자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 ③ 도가는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한 사상이다.
- ④ 공자는 사람들이 분명한 언어로 표현된 자신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노자는 문명 비판적인 언어 개념을 사용하여 무명의 세계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02. ㉠ 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사람은 얼굴과 특성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모두를 '사람'이라고 칭한다.
- ② '사자'라는 이름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는 실제 사자의 외적인 형태와 관련이 없다.
- ③ 실제 하늘이라는 대상은 하나이지만, 언어의 종류에 따라 '하늘', 'sky'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④ 하늘의 별을 '별'이라고 이름 지어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을 임의로 '밭'이나 '불'로 부를 수 없다.
- ⑤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화했다.

03. 윗글의 순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말과 소는 사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짐,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짐 등 같은 짐이 많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같은 짐에 주목하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며,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

- ① 언어 개념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으므로, 말은 소가 될 수 없다.
- ② 대상의 같은 짐에 주목하는 것은 언어 개념의 사용을 통해 귀천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말과 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언어 개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 ④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약속에 의해 정해진 언어 개념을 어지럽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⑤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 간의 분별을 없애는 것으로, 예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생물학자 윌슨은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학을 목표로 사회 생물학을 주창하였다. 그는 사회 생물학을 모든 사회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사회를 유전학과 진화론에 기초하여 규명하지 않는다면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인간의 윤리 문제도 생물학적 검증이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와 윤리 등과 관련된 인간의 의식도 뇌의 시상 하부와 대뇌변연계에 있는 정서 중추에 의해 형성되고 제어되며, 유전자의 특성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생명체가 지니는 특성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윌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이 ㉠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 이러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로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제시되기도 한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철학에서 이념적 기초로 제시한 개념인 '현실적 존재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체이다. 현실적

존재자는 다양한데, 신도, 허공 속에 ㉢ 부유하는 먼지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도 모두 현실적 존재자이다. 이들은 존재적 중요성이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는 같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현실적 존재자란 과거를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 창출하는 과정 속의 실체이다. 그런 점에서 신도 먼지도 세포도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우리의 현실 세계는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면서, 현실적 존재자들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각각의 현실적 존재자들이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인 '공재(togetherness)'와 통일성을 이루는 과정인 '합생(concrescence)'을 거쳐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가 생성되며, 이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는 다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때의 일련의 과정은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를 따르는데, 하나의 현실적 존재자는 ㉤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에게는 주어진 조건, 즉 여건이 되고 또 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나아가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적 존재자는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는 고유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화이트헤드가 '현실적 존재자는 조각난 단편이 아니라 필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실적 존재자의 특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생물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는 주체적으로는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다시 말해, 현실적 존재자는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후속하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에게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객체적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 존재자 내부에 미래가 잠재되어 있다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생물학이 ㉥ 접하는 지점이 된다. 생명체는 유전자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 즉 개체 유전을 통해 객체적 불멸성을 실현한다. 앞선 존재자와 후속하는 존재자로 이어지는 과정은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재와 합생을 거치며 생명체의 존재 목적이 달성된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자신의 세대를 마감한 후에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목적을 생명 중추라고 칭하였다. 현실적 존재자로서 생명체는 개체 유전을 통해 생명 중추를 달성하고 미래의 존재자에게 결정적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이 사회 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평가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0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월슨은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려면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월슨은 하등 생물과 고등 생물에 모두 적용되는 생물학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화이트헤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들도 현실적 존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④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중요 기관인 생명 중추를 통해 개체 유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⑤ 화이트헤드는 생명체의 존재 목적은 후속하는 생명체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05.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체는 여러 현실적 존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 ② 생명체는 생명을 본질로 하지만 결국 소멸하는 일시적 존재이다.
- ③ 생명체의 개체 유전은 생명체의 독립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④ 생명체의 현재 속에는 미래의 생명체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
- ⑤ 생명체의 특징은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무작위적 결합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06. 윗글의 '화이트헤드'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라는 현실적 존재자와 B라는 현실적 존재자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W_{AB} 라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형성하였다.

- ① W_{AB} 를 A와 B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A와 B는 W_{AB} 의 여건이자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③ W_{AB} 를 이루기 위해 A와 B는 서로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 ④ A와 B는 W_{AB} 내에 있는 현실적 존재자로서 W_{AB} 의 특성을 모두 포괄한다.
- ⑤ W_{AB} 는 A와 B가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합성하는 과정을 거쳐 실재하게 된 것이다.

07. <보기>의 (가), (나)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데카르트는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실체의 존재는 실체가 놓여 있는 여건이나 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명체는 생존에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현상에서 찾는 것으로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신념이다. 환원주의에서는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체로 설명하는데, 이는 부분의 속성을 전체도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환원주의는 생명체가 유전자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가): 데카르트가 실체가 존재하는 데는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현실 세계를 현실적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라고 설명하는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 생명체는 적절한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존재를 위협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화이트헤드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자의 주체적 소멸을 줄이는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 환원주의에서 복잡한 구조와 속성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은, 현실적 존재자를 '떨떡거리는 경험의 방울'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 존재자를 동태적 존재로서 인식한 화이트헤드의 관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 생명체를 부분의 결합체로 보고 생명체를 이루는 부분의 속성을 생명체가 그대로 가진다고 추론하는 것은, 현실적 존재자는 과거를 여건으로 하여 미래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 환원주의가 생명체의 여러 부분은 복잡한 상호 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도 결국에는 현실적 존재자라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화이트헤드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모자란다는
- ② ㉡ : 떠다니는
- ③ ㉢ : 찾아내는
- ④ ㉣ : 뒤잇는
- ⑤ ㉤ : 맞닿는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생리학 분야의 절대적 권위는 2세기 경 그리스 의학을 집대성한 갈레노스에게 있었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정맥피는 간에서 생성되어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면서 소모된다. 정맥피 중 일부는 심실벽인 격막의 구멍을 통과하여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한 후, 거기에서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을 통해 폐에서 유입된 공기와 만나 동맥피가 된다. 그 다음에 동맥피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생기를 전해 주면서 소모된다. 이 이론은 피의 전달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갈레노스의 포괄적인 생리학 체계의 일부로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다. 중세를 거치면서 인체 해부가 가능했지만, 그러한 오류들은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학문 풍토 때문에 시정되지 않았다.

16세기에 이르러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통해 격막에 구멍이 없으며, 폐정맥이 공기가 아닌 피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이 발견되자 갈레노스의 피의 소모 이론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자들은 갈레노스의 이론에 얽매어 있었으므로 격막 구멍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문제, 즉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옮겨 갈 수 없는 문제를 폐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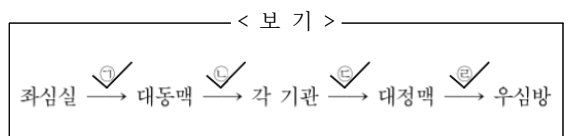
이러한 판도를 바꾼 사람은 하비였다. 그는 생리학에 근대적인 정량적 방법을 도입했다. 그는 심장의 용적을 측정하여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추정했다. 그 결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피의 양은 섭취되는 음식물의 양보다 훨씬 많았다. 먹은 음식물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하비는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하비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어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하였다. 피의 흐름이 멈추자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은 차가워졌다. 동맥을 차단했던 끈을 약간 늦추어 동맥피만 흐르게 해 주자 손은 이내 생기를 회복했고, 잠시 후 여전히 끈에 압박되어 있던 정맥의 말단 쪽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끈을 마저 풀어 주자 부풀어 올랐던 정맥은 이내 가라앉았다. 이로써 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손을 돌아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 실험을 근거로 하비는 1628년에 '좌심실→대동맥→각 기관→대정맥→우심방→우심실→폐동맥→폐→폐정맥→좌심방→좌심실'로 이어지는 피의 순환 경로를 제시했다. 반대자들은 해부를 통해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얼마 후, 말피기가 새로 발명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폐와 그 밖의 기관들을 피가 따로 순환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체 기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09. 위 글로 보아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 ② 과학적 발견들과의 부합
- ③ 정량적 사고방식의 채택
- ④ 새로운 관찰 도구의 도입
- ⑤ 실험적 방법의 적극적 활용

10. <보기>는 '하비'가 제시한 피의 순환 경로의 일부이다. '하비'가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1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1.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위 글의 사례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것이 '과학 혁명'이다.

-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므로 '패러다임'이었겠군.
- ② 갈레노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 과학'이었겠군.
- ③ 폐정맥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갈레노스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변칙 사례'에 속하겠군.
- ④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하겠군.
-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이 갈레노스의 이론을 대신하여 수용된 것이 '과학 혁명'이었겠군.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쾌락주의는 모든 쾌락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를 통해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윤리설이다. 쾌락주의에 따르면 쾌락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모든 것은 이러한 쾌락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학에 의해서는 개인의 쾌락을 중시하는 이기적 쾌락주의로, 근대의 벤담과 밀에 의해서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로 체계화되었다.

그런데 쾌락주의자는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적 삶을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쾌락주의는 일시적인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 말초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성취가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쾌락주의자는 단기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또한 쾌락주의는 쾌락 이외의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주의가 쾌락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쾌락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고통조차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이 불구덩이에 빠져서 통증을 느껴 곧바로 발을 빼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의 고통은 분명히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면, 불구덩이에 빠진 발을 꺼낼 생각을 하지 못해서 큰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고통이 가치 있다는 것은 도구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쾌락주의는 고통을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금욕주의자가 기꺼이 감내하는 고통조차도 종교적·도덕적 성취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속적 금욕주의자들은 재화나 명예와 같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당장의 쾌락을 포기하며, 종교적 금욕주의자들은 내세의 성취를 위해 현세의 쾌락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적 성취이든 내세적 성취이든간에 모두 광의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쾌락주의가 여러 오해로 인해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쾌락주의가 어떠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의 정의나 쾌락의 계산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쾌락의 원천은 다양한데, 과연 서로 다른 쾌락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가령 식욕의 충족에서 비롯된 쾌락과 사회적 명예의 획득에서 비롯된 쾌락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 벤담은 이 쾌락들이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다

를 뿐이라고 대답함으로써 쾌락주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저급한 돼지의 쾌락과 고차원적인 인간의 쾌락을 동일시하여 결국 돼지와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쾌락주의자로부터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받았다. 밀은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질적인 쾌락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밀은 이질적인 쾌락이라고 해도 양자를 모두 경험한 다수의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을 고급 쾌락이라고 하면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유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다른 쾌락주의자들은 ㉡ 밀이 쾌락주의의 입장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12. 위 글에 나타난 쾌락주의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고통은 그 자체로서 목적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 ②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 ③ 쾌락이 아닌 다른 것도 도구적 의미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④ 금욕주의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은 쾌락을 위한 것이다.
- ⑤ 두 행위 중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이다.

6

13. ㉠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쾌락주의는 사디스트가 쾌락을 얻기 위해 가학적 행위를 하는 것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 ①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른 것이다.
- ②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 자신의 쾌락을 증진해 주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 ③ 사디스트의 가학적 행위는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그른 것이다.
- ④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 ⑤ 사디스트가 가학적 행위로 얻는 쾌락보다 그로 인한 희생자의 고통이 더 클 경우에 가학적 행위는 그른 것이다.

14.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밀은 쾌락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을 포기하였다.
- ② 밀은 도덕적 가치 평가에서 쾌락 이외의 다른 기준을 도입하였다.
- ③ 밀은 쾌락의 원천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④ 밀은 모든 쾌락을 하나의 기준으로 환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밀은 질적 차이가 있는 쾌락을 서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